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Vol.61, No.4(2016), pp. 13-27.
http://dx.doi.org/10.16877/kjds.61.4.201609.13

진로다양화 및 세분화를 위한 무용학과 진로교육 교과과정 및 운영 방안

신 민 혜*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역량기반 진로교육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 론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을 통한 시스템 컨트롤이 가능해 지고 있는 현 시대 및 앞으로의 시대는 노동 형태와 내용에 있어 혁명적인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 의제가 창조경제로 대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혁명적 변화에 대한 대처이며, 앞으로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는 과거 혹은 현재의 그 모습을 뛰어 넘는 새로움이 덧씌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보유한 지식의 양이나 질이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선 공간에 산재한 지식의 활용과 통합을 통한 창의가 교육과 산업을 넘어서 시대적 패러다임이 될 것임을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공유지식 확산의 시대에서는 보유한 지식의 양과 질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 인재가 아닌, 그것들의 활용 능력이 우선시 되는 역량기반의 인재 양성이 교육적 그리고 산업적 요구임은 당연해진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어떠한 지식을 얼마만큼 보유했는가?"보다는 "어떠한 역량을 얼마나 심도 깊게 함양할 것인가?"가 교육정책과 관련한 주요 의제로 제시되고 있다.[1] 물론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해 역량기반교육이 무용을 포함하는 대학의 전공교육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역량기반교육은 깊이에 더해 다양성과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해 보인다. 개인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는 현재 및 미래사회는 전공부문의 깊이를 기반으로 그 영역을 다양하고 세분화하여 확대하도록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minhei@sookmyung.ac.kr

1) 김혜영, 이숙정(2012), 역량교육모델의 진단과 방향: 역량교육과정과 교육효과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6(4), p.13; 박민정(2008), 대학교육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담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육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6(4), p.174.

www.kci.go.kr

교육통계연구센터의 2014년 대학졸업자의 평균 취업률 조사에 따르면 인문계열 취업률 평균이 45.5%, 사회계열은 54.1%, 교육계열은 48.7%, 공학계열 65.6%, 자연계열 52.3%, 예체능계열 41.4%인데 반해, 무용관련 학과의 평균 취업률은 29.7%로 나타났다.[2] 무용관련 학과의 평균 취업률이 예체능계열 평균 취업률에 포함되었을 것을 감안할 때, 예체능계열도 50%를 상회하는 평균취업률을 보일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평균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무용학과 졸업생에 대한 "진로개척"이 연구와 교육에 대한 대학 및 학과의 관심과 지원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 접근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대학의 책무는 교육, 연구, 봉사이지만 최근의 경기침체는 대학교육의 무게중심을 취업과 진로로 이동시키고 있다. 청년실업이나 청년취업난이 사회문제화 되고 사회갈등의 불씨가 되어 그 폭발력을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인 작금의 상황을 감안할 때,[3] 무용관련 전공의 교육이 진로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세대 간 혹은 교육자-피교육자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무용관련 학과에서 진로 다양화나 세분화를 통한 진로개발이 미진할 경우, 이러한 가능성 높은 학과 내 의 갈등에 더해 학과 외의 위기도 초래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진로가 사회 이슈화되어 왔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양질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 온 무용을 포함하는 기타 학과들은 학과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2018년부터 시작될 입학정원 부족현상이 2023년에는 현재보다 약 16만 1,038명이 부족하다는 정성민(2014.01.03.)의 보도는 그간 학생들의 진로에 무관심했던 그리고 진로개발에 미진했던 무용을 포함하는 많은 학과 교수자들의 의식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정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정원감축 요구해 오고 있다. 그리고 각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원감축의 평가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 수주를 위해서, 또한 앞으로의 새로운 학과에 대한 수요 반영의 명목을 갖고 대학별 학과 통폐합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폐합의 여파를 무용관련학과도 피할 수는 없게 된다. 2014년 대학알리미의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용관련 학과의 수가 전국 적으로 41개(2012년도)에서 37개(2014년도)로 축소된 사실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학 무용학과 통폐합이나 폐지의 주요 원인을 무용학과의 취업률 저하나 진로개발 부진으로 인한 지원자 감소로만 탓할 수는 없다. 무용관련 학과 폐지 및 축소라는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무용 전공자의 진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부의 문화 행정도 한 몫을 담당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문화융성'의 기치와는 달리 무용계에 대한 인적, 물적 투자의 인색함이 무용관련 학과 폐지 및 축소의 기저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4년간 무용을 전공하고 무용관련 직종에 진출하거나 무용관련 새로운 직종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던 사실은 학교 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정책입안 및 시행자 그리고 대중 일반에게도 무용관련 학과의 폐지 및 축소에 대한 공감의 빌미를 제공해 왔다는 점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제시하듯이, "역량기반 전공 및 진로교육의 필요성 증대"의 배경과 "학령인구감소와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무용학과로의 진학자 수 감소"의 이유, 그리고 이에 따른 "무용관련 학과의

2)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 연계 취업통계연보(ISSN 2287-5921)』(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p.50-64.

3) 전병준(2016.07.19.), 알리가 세상에 던진 한마디-"좌절하지 말라," 『매일경제』,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517607, 2016.07.07.〉.

www.kci.go.kr

진로 다양성 및 세분화를 통한 진로확대"와 같은 시대적 요구는 무용관련 학과의 교수자 및 학습자로 하여금 어떠한 역량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함양해야 하는가와 그리고 이에 따라 어떻게 다양하고도 세분화된 진로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 물론 이러한 고민의 종착지에는 어떠한 진로가 어떠한 역량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학습자-교육기관-산업계〉 사이의 소통 부재가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진로라는 주제가 이전의 무용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기존의 무용교육과 융합교육을 수강한 무용전공자들의 진로의식과 진로결정에 대한 선행연구[4]에서는 융합교육을 수강한 무용전공자들의 진로의식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교육을 통한 진로에 강조점을 둔 무용관련 선행 연구[5]와 초등돌봄전담사라는 구체적인 직종을 통해 인접학문과의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6]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무용학과를 위한 진로교육과정의 도입에 대한 주제에 접근하여 진로교육과정의 수립에 중요한 단서를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용관련 학과가 직면하고 있는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지원자-대학정원 수급 불균형"과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무용관련 학과의 통폐합" 그리고 "현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기반의 인재양성"의 패러다임에서 무용관련 학과 학생들의 진로를 다양화 및 세분화하기 위한 교과과정과 진로교육은 어떻게 구성 및 운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문헌분석의 단계를 거쳐 전문가 그룹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진로 다양화 및 세분화를 위한 "무용학과 진로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고찰해 보았다.

연구문제의 첫 번째는 "진로 다양화 및 세분화를 위해 필요한 무용학과 진로교육의 형식과 내용은 무엇인가?"이며 "제시된 진로교육의 형식과 내용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진로교과과정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가 연구의 두 번째 문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무용학과에 적용될 수 있는 진로교육과정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둘째, 학령인구감소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무용관련 학과 통폐합이라는 위기를 넘어서서 무용학과의 발전을 논할 수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역량기반 진로교육

자동화와 산업고도화로 촉발된 청년실업이 세계적인 이슈화 된 것은 1990년 이후이다.[7] 따라서 진로관련 교육은 최근 3~4년 동안 그 필요성이 급부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 진로관련 교육의 주된 패러다임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창의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역량 중심의 진로교육에 있음을 지적한다.[8] European Commission(2000)과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4) 홍정화(2015), 무용교육 및 융합교육 참여 무용전공대학생의 전공인식과 진로결정의 차이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8.
5) 박선희, 조남용(2009), 진로 교육 측면에 살펴본 무용관련학과의 교육과정 현황과 대안적 방향 탐색, 『한국무용과학회지』 19, p.8.
6) 문선화, 이태구, 이한주(2016), 무용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진로역ㄹ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새로운 취업경로인 초등돌봄전담사 측면에서, 『한국무용과학회지』 33(3), p.38.
7) 임운택(2011), 유럽의 청년실업정책: 주요 5개국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29(3), p.64.

for Development: 이하 OECD)의뢰로 실시한 Rychen과 Salganik(2003)의 보고서는 지식 보유의 사회로부터 지식 활용을 위한 역량기반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과 이에 따른 역량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진로를 위한 교육도 역량중심으로 변화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선진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미국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이하 AACU)(2006)에서 제시한 보고서도 대학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역량과 진로교육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역량기반의 진로개척이 국가적 문제임을 직시하고 있다. 이들 기구들은 역량기반 교육과 역량기반의 진로개척이 청년실업 문제와 고용불안 해소 등의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진로교육이 초등교육기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중등 및 고등기관의 교육을 통해 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9)]

취업이나 진로와 관련되어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은 매우 다양하다. 이송이와 심태은(2016)의 연구에 기술되어 있듯, 청소년의 취업과 진로에 대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보고서에는 진로개발과 관련된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총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비판적 사고능력, 분석능력, 문제해결력, 수리적 문제분석능력,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역량 기반의 교육을 통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이는 결국 학과와 전공에 대한 만족과 진로행동 및 학업성취로 이어짐을 김지선, 육정원, 김이준, 김봉환(2016)의 연구는 보여준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1986, 1990)가 소개한 이론으로서 소위, 주어진 활동이나 과제에 대해 자신이 인식하는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일컬어진다. 물론 이러한 자신에 대한 믿음은 맞닥뜨린 활동과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수행성공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자신이 행하는 활동이나 과제에 대한 성공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음을 그는 지적한다.

자기효능감의 이론을 바탕으로 Taylor와 Betz(1983)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과 이론을 발전시키게 된다. 이들은 이 개념을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규정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향상이 갖는 중요성은 그것과 진로탐색,[10)] 진로행동 및 학업성취,[11)] 학과만족도[12)]와의 긍정적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즉 학생들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향상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데 있어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에 대한 적극성을 갖으며, 전공분야에서의 학업성취도 동반 향상되고 학과에 대한 만족도 또한 상승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13)]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향상은 진로탐색 및 진로행동에 있어 적극적 자기주도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로의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공분야에서의 학업성취도 향상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서의 세분화된 진로를 탐색하고

8) 정철영, 정진철, 이종범, 정동열, 임효신, 이서정, 임정훈(2015), 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진로교육연구』 28(3), p.156.

9) 정철영(2011),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실과교육연구』 17(4), p.2.

10) D. A. Luzzo(1993), Value of career-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predicting career-decision-making attitudes and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p.195.

11) R. W. Lent, S. D. Brown & G. Hackett(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p.80.

12) M. Komarraju, J. Swanson & D. Nadler(2014), Increased career self-efficacy predicts college students' motivation, and course and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2(3), p.431.

13) 김수란, 정미경(2014),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교과목이 진로장벽,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26(3), pp.409-433.

www.kci.go.kr

발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향상은 학과를 불문하고 진로의 다양성과 세분화된 진로로의 진출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이렇기에 고등교육의 대표 기관인 대학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먼저 교육전반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한 교과 및 비교과활동을 통해 전공지식 및 기능, 역량, 인성 및 전인교육의 기틀을 제시함으로써,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자기주도성을 강조한다. 특히 진로에 대한 대학의 지향은 구체적인 취업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크게 진로상담, 진로특강, 진로교과과정의 세 가지 형태와 내용으로 분류된다. 물론 취업역량강화캠프나 취업박람회와 같은 일회성의 행사도 세분화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이들은 크게 진로상담이나 진로특강의 형식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기에 상기한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진로교육과 관련된 상담프로그램은 개별 혹은 집단,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상담의 형태로서 진행되는데, 이는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선행연구는 보여주고 있다.[14] 또한 상담은 진로의사결정능력과 진로의식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들 연구들은 주장한다.[15]

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발표, 모의면접과 같은 취업과 관련된 일회적인 특강이 그것이다. 강원준, 김종인, 김정원(2008)은 특강의 경우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와 같은 필요 문서작성이나 면접에서 필요한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간 대비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야기한다.

마지막은 대학 교과과정 내에서 진로탐색, 진로설계, 인턴십 등의 다양한 진로교과목이 운영되는 형태이다.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진로와 무관한 활동참여나 자격증 취득과 같은 비효율적인 생활관리 및 자기관리의 차원에서라도 진로탐색이나 진로설계과 관련한 정규 교과목을 도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무용의 특성 상 초중등 저학년부터 무용에 몰입해 온 대다수 무용전공학생들의 경우, 무용과 관련한 새롭고 다양한 진로 또는 무용내의 세분화된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소스에 접근하거나 정보 자체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진로탐색과 진로설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더해 준다. 이에 더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실무를 접해 볼 수 있는 인턴십의 프로그램도 정규교과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다수의 기업현장은 직무에 관한 실무능력을 보유한 인재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인턴십이 해당 기업의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적극적인 진로개척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취업지도 및 진로지도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 연계 및 창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과 관련된 특강의 경우 매 학기마다 수시로 진행되지만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피드백이 어렵고, 이론 전달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16] 특히 정규 교과과정 상의 진로 교과목의 운영은 직업적 자기이해를 수반한다는[17] 점

14) 김은희, 김봉환(2009), 진로장벽 깨뜨리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pp.22-36.

15) 김경미, 백사인(2011),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Holland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식 및 진로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효과, 『취업진로연구』 1(2), p.36.

16) 김수란, 정미경(2014),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교과목이 진로장벽,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26(3), p.410.

17) 전은화(2013), 대학 신입생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기반 연구-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도에 미치는 효

kci.go.kr

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전공필수 교과과정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학습자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으면 진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무용학과 교과과정은 크게 무용이론과 실기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학과의 특성상 실기 교과목에 치중되어져,[18] 진로 교과목의 운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용학과 교육과정-진로 또는 취업〉으로의 연계에 있어 어려움이 뒤따른다.[19] 이에 따라, 한선숙(2009)은 대학 무용학과를 졸업한 뒤 자신의 전공에 부합되지 않는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진로개발역량과 무용학과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진로설정을 통해 무용 분야 내에서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진출이 가능한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을 나경아, 한석진(2015), 박선희, 조남용(2008), 박순자(2013), 배수을(2016), 신민혜(2015) 그리고 안귀호, 서숙희(2014)는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용학 전공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무용학과 교과과정 내에서의 진로교육 내실화를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용학과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위해 진로교육 교과목의 도입 및 운영, 그리고 구성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무용학과 학생들의 진로세분화를 위해 먼저, 문헌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가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교육과정-취업의 성공적인 진로연계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통폐합과 축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학 무용학과의 진로 다양화를 위한 진로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무용학과의 진로 다양화 및 세분화를 위한 교과과정 현황을 분석하여 무용학과 내의 진로교육의 내용, 형식,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6개 대학의 무용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또한 선정된 대학의 무용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로관련 교과과정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었다.

문헌자료 분석 이후 도출된 진로관련 교육과정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무용 및 교과과정 전문가(대학교수 및 연구원) 7인과의 포커스그룹 인터뷰(구조화된 질문)를 통해 연구문제 1번(진로 다양화 및 세분화를 위해 필요한 무용학과 진로교육의 형식과 내용은 무엇인가?)과 연구문제 2번(제시된 진로교육의 형식과 내용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진로교과과정 및 교수법의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2. 연구참여자

과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6(3), p.105.

18) 박순자(2013), 무용예술의 발전을 위한 대학무용교육의 방향 제시, 『대한무용학회지』 71(6), p.99.

19) 신민혜(2015), 진로확대를 위한 역량중심의 무용학과 교과과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6.

본 연구는 문헌자료 분석과 포커스그룹 인터뷰가 주된 연구방법으로서, 인터뷰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전문성이 연구의 진실성에 매우 중요하다.[20] 따라서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무용, 교과과정, 진로교육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자료 수집기간은 2016년 3월 10일부터 3월 25일에 거쳐 총 2회, 3시간 정도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다음의 〈표 1〉은 연구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연구참여자	연령	성별	학위	교육경력
김OOA	45	남	박사	8년
조OO	48	남	박사	9년
박OO	45	남	박사	7년
김OOB	48	여	박사	10년
이OO	43	남	박사	6년
최OO	44	여	박사	7년
강OO	45	여	박사	8년

3.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는 문헌자료 분석의 진실성 담보를 위해 비판적 조언자 검토(Peer Debriefing)와 삼각적 문헌자료 수집의 방안을 적용하였다. 먼저 6개 대학 무용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헌자료를 다원화함으로써 무용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문헌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문헌분석에 있어 각 교과의 수업목표와 교과요목(Syllabus)에 대한 설명을 해석하고 또 그 해석에 따라 교과목들을 분류 하는데 있어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교과과정 전문가의 비판적 조언을 바탕으로 실시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을 담보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포커스그룹과의 인터뷰는 선행연구[21]의 그룹인터뷰 및 구조화된 질문 가이드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커스그룹 인터뷰 진행자는 그룹 내의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그룹 전체의 의견을 이끌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터뷰 진행자는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기타 이유로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연구참여자를 적극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터뷰 진행자는 연구참여자 전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연구문제 및 주제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넷째, 인터뷰 진행자는 이러한 전반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와의 균형 잡힌 라포(Balanced rapport)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터뷰 진행자는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

20) 윤숙희, 최선남(2015), 청소년 미술치료사의 치료과정 경험에 대한 연구-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 『미술치료연구』 22(2),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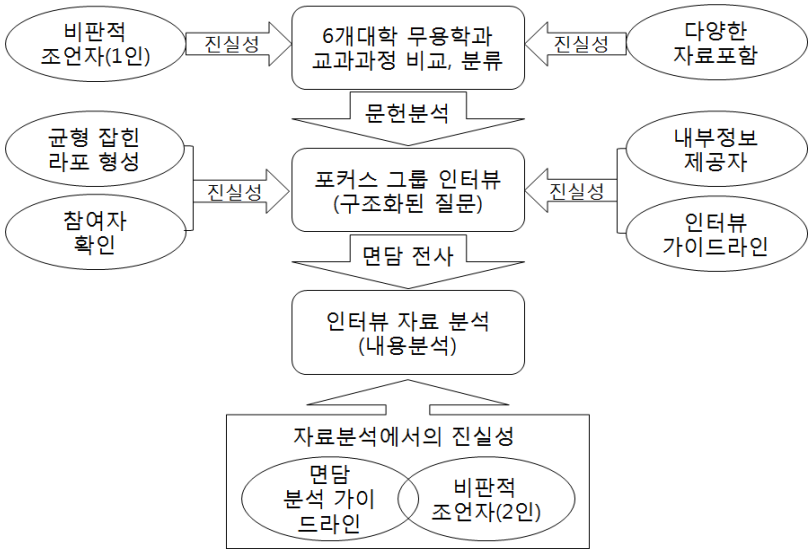
21) Fontana, A. & Frey, J. H.(2003), The Interview: From Structured Questions to Negotiated Text,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Collecting and Interpreting Qualitative Materials*(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p.68, p.73, p.380.

www.kci.go.kr

여섯째, 인터뷰 진행자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모든 인터뷰를 진행한다.
일곱째, 인터뷰 진행자는 핵심적인 질문 설명을 길지 않게 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공식적인 환경 내에서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모든 질문과 답변이 명확하게 이해된 후 상호 전달되었으나, 연구참여자 본인들의 답변에 대한 사후 확인(참여자 확인: Member check)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자료수집에서의 진실성 담보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와의 라포가 상대적으로 깊은 1인의 연구참여자에게 정보제공자(Informant)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휴식 때나 기타 연구자 부재 시 연구참여자 간에 이루어지는 연구주제 관련 대화의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인터뷰 내용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료수집에서의 진실성 담보 방안을 추가하였다.

자료 분석 시에는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문헌 분석 시 비판적 조언(Peer debriefing)을 바탕으로 교과목을 비교, 분류하였다. 녹음된 인터뷰 자료는 먼저 전사되었고, 인터뷰 자료의 분석 역시 선행연구[22]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실시하였으며 2인의 비판적 조언자가 참여하였다. 즉 연구자를 포함하는 3인이 인터뷰 자료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료 분석에서의 진실성을 담보하였다. 인터뷰 자료의 분석은 내용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즉 문장에 나타난 주제와 해당 주제의 의미를 파악하여 1차 분류를 실시하였고, 2인의 비판적 조언자가 분석 및 분류된 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행함으로써 진실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림 1〉은 전반적인 연구절차 및 진실성 확보 방안에 대한 개괄을 보여준다.



〈그림 1〉 연구절차 및 자료 수집 및 분석에서의 진실성 확보

22) J. M. Morse & P. A. Field(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2nd ed.)(Thousand Oaks, CA: Sage), pp.125-149.

www.kci.go.kr

Ⅳ. 연구결과

1. 6개 대학 무용학과 교과과정 분석

본 연구는 먼저 6개 대학의 무용학과 교과과정 분석을 통하여 진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비판적 조언자 1인의 검토를 통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용학과 내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무용학과 교과과정 분류 (6개 대학)

이론관련 교과목		실기관련 교과목	
무용치료, 분장법, 커뮤니티 댄스, 무용음악(이론 및 실습)			
무용평론	무용개론	전공실기	부전공실기
아동무용교육연구	무용교육론	무용동작분석	무용인턴십(현장실습)
예술교육상담	무용구성법(안무법)	즉흥법	컨템포러리발레
외국무용사	무용기록법	무용연기	레파토리
외국어특강	무용미학	무용창작	캐릭터댄스
운동생리학	무용심리학	무형문화재춤분석	타악실기
졸업논문	무용예술사조	워크숍	공연프로젝트
무용진로특강	무용외서강독	국제발레교사과정	한국무용호흡법
한국무용사	무용의학	한국무용표현법	예배무용
무대효과론	무용인류학	워크숍	댄스스포츠
무용테크놀로지	무용작품분석	필라테스	스포츠마사지
무용해부학	무용정보론	요가	
현대무용사	무용지도법		
세계춤연구론	무용창작론		
체육교직 (사범계열)	무용측정평가		

2. 면담자료 분석: 바람직한 무용학과 진로교육의 형식과 내용

여섯 개 대학에 대한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분류한 문헌자료 분석의 결과를 7인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무용학과 교과과정은 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무용학과 학생들은 개론적 성격의 과목에서부터 특수한 영역과의 접목을 시도한 다양한 강좌의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 연구참여자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무용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참여자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은 첫째,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진로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목이 무용학과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표 2〉에 기술되어 있듯, 나열한 교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류된 교과목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설된 강좌를 통한 무용학과 학생들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진로의식 마련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자의 진로의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www.kci.go.kr

연구참여자 최OO는 특수한 영역과의 접목을 시도한 강좌의 대표로서 “무용테크놀로지”라는 강좌를 지목한다. 그리고 진로다양화를 위한 시작을 진로교과목 개설이 아닌 무용과 새로운 영역과의 접목이 시도되는 강좌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 무용테크놀로지라는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신세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깊이 있는 접근이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요. 하지만 적어도 학생들 뇌리에서 태풍은 불었을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러겠지요. “내가 왜 이런 걸 배우고 있지?” 하지만 그게 시작인 거죠. 그런 강좌들이 ‘아주’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요. 단지 가르치시는 분이 그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진로를 보여주실 수 있는가의 문제인거라고 생각되요.

이들 연구참여자들은 둘째, 진로세분화를 위한 무용관련 교과목들 또한 무용학과 교육과정에 배치되어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진로세분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용과 관련 있는 교과목(무용동작분석, 무용미학, 무용심리학, 무용인류학 등등)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연구참여자의 시각이었다. 물론 진로 다양화가 아닌 진로 세분화에 대한 접근은 실기로서의 무용이 먼저 심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2인) 개진되었다. 하지만 다른 5인의 연구참여자는 무용수로서의 진로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진로다양화나 세분화를 위해서는 실기로서의 무용에 대한 교과목의 편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연구참여자 이OO은 무용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교과목들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수강하게 되면 충분히 무용과 관련된 세분화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어휴… 이 정도의 강좌를 학기마다 수강하게 되면 무용전문가가 충분히 되겠는데요… (중략) 동작의 미적인 부분도 보고 해부학적인 관점도 갖고 심리적인 부분도 접근하고 있고, 분장에, 무대효과에, 무대음악까지 한다면 무용수 자체와 공연으로서의 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죠.

셋째, 진로관련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진로교과목을 독립적으로 개설하기 보다는 특강이나 상담이 우선되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6인)를 차지하고 있었다. 장기적으로 진로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으나, 무용학과 학생들의 수강을 독려하기 위한 그리고 그를 통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서는 체험 형식의 특강이나 상담이 선행되어야 함을 6인의 연구참여자는 공감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박OO는 “무용인류학”, “무용미학”, “무용해부학”과 같은 무용과 관련 있는 영역과의 접목을 시도한 강좌의 개설이 진로세분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즉 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나 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영역으로부터 바라본 무용에 대한 이해가 진로를 세분화할 수 있는 시작임을 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진로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특강’과 ‘흥미위주’로 시작해야 함을 지적한다.

www.kci.go.kr

생뚱맞은 분야로부터 (무용을) 바라보는 혹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와의 접목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진로요?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분야에 대해 접근하겠어요? 그리고 무용이 주가 되고 다른 영역이 부가 되어야 (무용학과) 학생들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죠. 진로교육이라는 타이틀로 강좌를 따로 개설하게 되면요... 학생들이 수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난 잘 모를거야..."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올 수는 없습니다. 먼저 체험하게 해야 하는데, 강좌개설로 시작되기 보다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강과 같은 것이 선행되어야 해요.

3. 면담자료 분석: 바람직한 무용학과 진로교과과정 운영 방안

진로다양화와 세분화를 위한 진로교육과정에 대한 대다수 연구참여자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이들 중 5인은 첫째, 교수자에 대한 진로교육의 선행과 진로의식 향상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한다. 교수자의 진로의식은 학습자의 진로의식에 대한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수자에 대한 진로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 김OOB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죠. 가르치시는 분 대부분이 진로에 대한 의식이 높진 않습니다. 과거 대학의 사회적 책임 대부분이 교육과 연구에 치우쳐져 있었으니까요. 교육과 연구에서 이론적인 접근을 주로 하게 되시잖아요? 그리고 진로나 취업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을 받은 지는 한 10여년 됐나요? 이제 패러다임이 진로로 가게 되었으면 그에 대한 교육도 받으셔야죠. 강의에서나 상담에서나 진로교육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리고 이들 중 6인은 둘째, 교과목 내에서 진로특강과 같은 체험형식의 진로탐색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다. 그들이 말하는 진로특강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와 같은 문서작성에 대한 특강이 아니라 해당 교과목과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한 특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의 시행이 당장 어려울 경우 다른 전공 혹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의식을 향상해야 함을 지적한다. 연구참여자 조OO는 다음을 지적한다.

학생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학생들이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학생들은 귀를 닫습니다. 그런데 해당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고 계신 분이 오셔서 "내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말해 주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귀를 엽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시의 특성 상 무용학과 학생들은 아마도 실기에 올인해서 입시를 봤을 거에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새로운 진로소개가 구두로 이루어지거나 학생 스스로에게 맡겨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이들 중 5인은 셋째, 진로교과목이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를 지적한다. 저학년의 경우 진로의식 자체가 높지 않음으로 다양한 진로에 대한 '체험'과 '자기이해' 위주로, 그리고 고학년의 경우 '자기이해'에 더해 '인턴십'과 같은 체험을 넘어선 실무경험 위주로 진로교과목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한다. 연구참여자 김OOA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www.kci.go.kr

정말 1, 2학년들은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최근 들어 정부에서 대학보고 장려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대학보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진로교육 하라고 합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나 고등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전부 대학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몰라요. 전부 수박 겉핥기식이라서 그래요. 대학 와서 다시 해야 해요. 1, 2학년 때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험이 먼저고요. 3, 4학년 때는 적어도 그 분야를 실제로 겪어 봐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잘 모르죠. 인턴십이 쉽지는 않지만 가서 해 봐야 해요.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진로다양화 및 세분화를 위한 무용학과 진로교육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 방안의 주제를 위해 "진로 다양화 및 세분화를 위해 필요한 무용학과 진로교육의 형식과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와 "제시된 진로교육의 형식과 내용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진로교과과정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의 연구문제에 접근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먼저 6개 대학의 무용학과 교과과정을 살펴보고 진로에 관한 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이후 7인의 진로교육 전문가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연구문제에 대해 접근하였다. 진로교육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이의 운영방안에 대한 면담 결과는 각각 3가지, 총 6가지로 집약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첫째, 이들 전문가들은 결국 진로교육에서 교수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교수자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적인 진로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역량 진단과 같은 구체적인 자기이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진로결정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는 이러한 점에 대해 명확한 기술을 보여 준다. 진로교육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질문 중 '진로체험형 특강'의 실시나 운영에 있어서의 '진로의식 향상을 위한 교수자에 대한 진로교육 선행'은 분명 진로교육에 있어서 교수자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무용학과 교과과정에 다양한 진로를 위한 그리고 진로세분화를 위한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교수자가 진로에 대한 의식이 희박할 경우, 진로교육은 요원한 일이 됨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진로개발 및 개척에 중요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전제조건이 자기이해, 진로의식, 진로교육임을 말할 때, 이것들 중 2가지가 선행되지 않는 환경에서의 진로교육은 성취될 수 없는 목표가 될 수밖에 없음은 매우 당연해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수자들에 대한 진로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로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일회성 체험 위주의 수박 겉핥기식 진로교육에 대한 지적이다. 진로박람회나 동영상을 통한 체험형의 진로교육이 진로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발점임은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체험은 중고등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나'에 대한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의미 없는 체험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이들 연구참여자들은 지적한다. 즉 개별 강좌에서 이루어지는 전공교육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바탕과 접목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체험을 이들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저학년과 고학년을 위한 진로교과목 분리를 덧붙이고 있다. 저학년은 '자기이해'와 '체험'을

www.kci.go.kr

그리고 고학년은 '실무위주의 경험'을 위한 인턴십까지도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인턴십과 같은 현장경험이 포함된 교과과정이 취업과의 연계성을 향상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임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효과적 운영방안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학과 통폐합에 따라 대학의 모든 전공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이미 시작해 왔다. 물론 무용학과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전국 대학의 무용학과 숫자가 2012년 41개에서 2015년 36개로 축소되었다. 대학은 취업기관이 아니며 교육, 연구, 봉사의 책무를 수행한다는 전통적인 명분만으로는 그리고 무용은 예술이라는 명분만으로는 학과의 존폐를 논할 수 없게 되었다. '진로'가 대학의 전부가 될 수도 혹은 되어서도 아니 되지만, 회피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닌 사회적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수행해야 할 때로 판단된다.

www.kci.go.kr

■ 참고문헌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European Commission(2000). *A Memorandum on Lifelong Learning.* Brussels: EAEA. 11.

Rychen, D. S. & Salganik, L. H.(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Paris: OECD.

신민혜(2015). 진로확대를 위한 역량중심의 무용학과 교과과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홍정화(2015). 무용교육 및 융합교육 참여 무용전공대학생의 전공인식과 진로결정의 차이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원준, 김종인, 김정원(2008).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분석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인적자원관리연구』15(1): 17-36.

김지선, 육정원, 김이준, 김봉환(2016). 대학생의 소명과 학과만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상담학연구』17(1): 249-264.

나경아, 한석진(2015). 대학 무용과 내 예술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과정 분석.『무용예술학연구』, 56: 39-56.

문선화, 이태구, 이한주(2016). 무용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진로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새로운 취업경로인 초등돌봄전담사 측면에서.『한국무용과학회지』, 33(3): 27-41.

박선희, 조남용(2009). 진로 교육 측면에 살펴본 무용관련학과의 교육과정 현황과 대안적 방향 탐색.『한국무용과학회지』, 19: 1-12.

박순자(2013). 무용예술의 발전을 위한 대학무용교육의 방향 제시.『대한무용학회지』, 71(6): 84-110.

배수을(2016). 사회수요 맞춤형 무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방안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에 근거하여.『무용예술학연구』, 59: 1-19.

안귀호, 서숙희(2014). 학점은행제 무용학사 표준교육과정 현황과 교육기관 실태.『무용예술학연구』, 46: 19-46.

이송이, 심태은(2016). 자기관리역량이 진로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후기 청소년의 비교과활동을 중심으로-.『한국가족복지학』, 21(1): 115-133.

한선숙(2007). 대학 무용전공자의 진로문제와 진로성숙의 관계.『예술교육연구』, 7(2): 25-36.

Bandura, A. (1990). Perceived self-efficacy in the exercise of personal agenc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 128-163.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정성민(2014. 1. 3). 학령인구감소 얼마나 위기 이길래….『대학신문』.〈http://www.dhnew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33423, 2016.07.07.〉.

논문투고일 2016. 8. 15.
심 사 일 2016. 8. 22.
심사완료일 2016. 8. 29.

www.kci.go.kr

Abstract

Career Education Curriculum and Management for Students' Career Diversification and Segmentation in the Dance Department

Shin, Min Hye
Lecture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at a desirable career education curriculum is and how it needs to be managed for students in the dance department. Dance curricula of six universities were compared, analyzed and classified at the initial stage of the study. Then, seven experts in the career education field participated in the study as the focus group interviewees. They indicated that curriculum in the dance department already included courses diverse enough to achieve career diversification and segmentation and recommended that career education needed to start with in-class special lectures rather than independent career classes. In regard to the second question, they claimed that career education needed to be performed to the instructor in each class. In addition, in-class career experience needed to be approached in advance to internship that used to be requested to juniors or seniors in the university.

Keywords: Career education(진로교육), Career diversification(진로다양화), Career segmentation(진로세분화), Focus group interview(포커스 그룹 인터뷰), In-class experience(교과 내 체험)

www.kci.go.kr

www.kci.go.kr